

목적관련

목적자 입장에서의 목적 관련 내용

[목적학생 송○○ 목적관련]

2025년 4월 15일

송○○은 체육시간에 조○○이 박○○의 달리기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으나, 수업 중이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고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함.

송○○은 '웃긴애들' 채팅방에서 조○○이 박○○ 영상을 올리고 "걷는 거냐 뛰는 거냐ㅋㅋㅋ"라고 한 것을 보았으며, 다른 친구들이 "ㅋㅋㅋ", "개웃기네"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도 함께 목격함.

2025년 4월 16일

송○○은 정○○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박○○ 영상을 다시 올리는 것을 보았고,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는 상황을 목격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.

2025년 4월 17일

송○○은 수학시간에 이○○이 발표하다 말을 더듬는 모습과 조○○이 이를 촬영하는 것을 동시에 목격했으나, 수업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음.

[목적학생 안○○ 목적관련]

2025년 4월 17일

안○○은 '웃긴애들' 채팅방에서 조○○이 이○○의 발표 영상을 올리고 "이○○ 랩하나?"라고 한 것을 보았으며, 김○○가 "말더듬이 콘테스트 1등감" 등의 댓글을 다는 것도 실시간으로 목격함.

안○○은 채팅방 분위기가 점점 이○○을 조롱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꼈지만, 자신도 따돌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채팅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말리지도 못함.

2025년 4월 18일

안○○은 점심시간에 정○○이 혼자 책을 읽고 있는 이○○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으며, 이○○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사진이 찍히는 것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말리지 못함.

안○○은 채팅방에서 정○○이 "외톨이의 일상", "친구 없어서 책이랑 대화하나봄" 등의 글과 함께 이○○ 사진을 올리는 것을 보고 죄책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개입하지 못함.

[목적학생 박○○(가해자와 동명이인) 목적관련]

2025년 4월 19일

박○○은 미술시간에 김○○가 최○○의 교복 착용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으며, 최○○이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았지만 수업에 집중하려고 외면함.

박○○은 쉬는 시간에 김○○가 촬영한 최○○ 사진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웃는 모습을 목격했고, "패션 테러리스트"라는 말을 직접 들었지만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감.

2025년 4월 20일

박○○은 미술시간에 조○○이 최○○의 작품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으며, 최○○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조○○이 비웃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지만 개입하지 않음.

[목격학생 여러명 집단목격관련]

2025년 4월 21일

'웃긴애들' 채팅방에 참여한 목격학생들(송○○, 안○○, 박○○ 포함 총 5명)은 조○○, 정○○, 김○○가 피해학생 3명을 '삼대장', '트리오'라고 부르며 새로운 별명을 만드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함.

목격학생들은 채팅방에서 피해학생들의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"ㅋㅋㅋ", "웃겨" 등의 단순 반응만 보였고, 일부는 "너무한 거 아니야?"라고 생각했지만 직접적으로 말리지는 않음.

2025년 4월 22일

송○○과 안○○은 체육시간에 김○○가 피해학생 3명이 같은 팀이 된 것을 보고 "짱팀 완성"이라고 말하며 다른 학생들이 웃는 상황을 목격했고, 피해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도 함께 봄.

박○○은 청소시간에 정○○이 피해학생들 담당 구역을 고의로 더럽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으며, "청소도 제대로 못하네"라는 말을 듣고 피해학생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모른 척함.

[방관자적 목격학생들의 심리상태]

2025년 4월 15일~22일 전반

목격학생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,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피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함.

일부 목격학생들은 피해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, 가해학생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며, 채팅방에서 나가는 것조차 망설임.

목격학생들 중 몇몇은 선생님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, "고자질"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두려워하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핑계로 신고를 미루다가 결국 하지 못함.